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개발정책의 효율적 운영 모형 정립

오해섭

한국청소년개발원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Model for Community Centered Youth Development Policy

Hae Sub Oh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effective model for community-centered youth development in Korea. The research methods used the extensive review of related literatures and consultation with a panel of experts in this field.

Based on the major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as follows.

First, community youth development will need to provide the opportunities of competencies and a full complement of positive connections to youth activities. Second, communities promote to engage youth as partners with adults in the process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ird, youth development organizations operate to support the programs to prevent or treat specific problems in terms of community youth contexts. Finally, collaboration and network are necessarily required among youth, adults, home, school, organizations within the community.

Key words: Community-centered, Youth Development Policy, Effective Model

I. 서 론

왜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개발정책으로 가야하는가? 산업화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온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대규모 도시화의 축진에 따른 소규모 지역사회의 공동화 현상이다. 우리나라 역시 1960년대부터 시작된 2차 산업 위주의 근대화 정책 이후 농촌인구의 급속한 유출로 인하여 도시 - 농촌 간의 경제적·문화적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현재 농촌지역 마을은 급

속한 노령화 현상과 함께 지속적인 짧은 충의 유출과 출산율 저하는 수많은 초·중등학교의 폐교사태를 불러왔으며, 이는 결국 지역사회의 해체와 기능상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나라가 건강하고 내실 있는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산업간, 계층간, 그리고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전제가 되어야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 중 하나가 지역 간 균등발전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체계의 최소 단위인 읍·면·동을 비롯하여 마을과 같은 지역사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정상적인 정주공간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해당 지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이들이 자신의 직업과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과 밝은 전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오늘날 최소의 정주권 개념인 읍·면 단위에 자녀교육환경, 여가생활 및 문화활동 공간, 평생학습센터, 각종 행정, 보건, 그리고 금융기관 등과 같은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더 넓은 거주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지역사회개발 과정에서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근거로 우선 지역사회 산업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예전과는 달리 어떤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대량생산 보다는 고 품질 상품생산에 점차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생산된 상품에 대한 유통과 마케팅 전략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IT제품의 보급에 따른 인터넷과 같은 통신판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품질 생산기술과 인터넷 판매 기술은 어른들에 비해 청소년들이 훨씬 더 빨리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주도적으로 창출해갈 수 있는 새로운 직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8-2002)'을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기존의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문제와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측면이 매우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은 청소년을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권익을 보장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청소년을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정책이 기존의 중앙중심의 규제와 닫힌 운영에서 지역

과 현장 중심의 자율과 열린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은 우리나라에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지방자치제와 최근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그 맥을 같이 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중심 개발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할지라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별적인 사업들이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업의 주체가 되는 인적자원의 역량과 지역주민들의 협조 및 참여정도에 달려 있다.

청소년활동의 방향이 점차 지역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변화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청소년단체 활동의 운영목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청소년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를 중시하여 청소년시설과 단체는 규모중심이 아닌 서비스중심으로 변모해 나가도록 권장함과 동시에 점차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청소년단체 활동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연결고리 형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주민 참여형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시설의 열린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개발정책과 각각의 단위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행모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문헌 고찰과 함께 이미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개발 사업이 정착단계에 있는 미국의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적용가능성과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의 중심 청소년개발정책의 중요성

지역사회가 다양한 기능으로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거주 주민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사회발전적인 가치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론적 견지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지역사회체계의 불균형보다는 균형적 요소가 더 많을 때 세대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균형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세대통합이 이루어지는 안정적이고 사회통제와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사회체계의 불균형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각종 사회문제는 지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전체 사회로 확대된다. 지역사회의 문제 특히 청소년문제는 바로 지역사회체계 간의 불균형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 가운데 청소년지도에 특히 관심을 부여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통제와 사회화를 강화시키는 기능과 함께 세대 간의 긴밀한 유대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통합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기에 지역사회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청소년은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학교교육과 함께 사회교육을 형성하는 지역사회의 구조는 청소년들의 자아형성에 매우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점이 바로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안심하고 믿고 자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긍정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각은 한편으로는 기성세대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은 그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종합적 생활 공간으로 전체 사회구조라는 거시적 공간 속에

지역사회의 환경과 그 안에 가족, 학교 또래집단과 같은 소규모의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간은 하부로부터의 청소년 개개인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요소가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소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지역사회는 그 자체가 생태학적 관점에서 개인, 학교, 가족, 또래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양면성에 따라 문제가 확대되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을 사회구성원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해 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과거 중앙집권적 청소년정책을 전개하던 시절에서는 주로 청소년문제의 접근에 관심을 가지면서 청소년들이 표출시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개하여 왔지만 이제는 이러한 시각이 크게 바뀌었다. 내일의 주인공이기 보다는 오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은 현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경제적 활동참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파트너십을 통하여 성인의 지시를 따르고 보호·육성되어야 할 대상에서 어른과 함께 사회변화와 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향후의 청소년정책의 접근에 대해 지방분권화에 의한 지역중심의 현장과 실천위주의 청소년정책이 되어야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에 의한 지역중심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청소년지원과 서비스의 확대한다.
- 2) 청소년사업공모제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기관·단체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내실화시킨다.
- 3) 지역사회중심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기회확대를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추진한다.

특히 주5일제와 같은 학교와 사회의 변화는 학교라는 보호기능을 수반해 주는 공간의 축소로 청소년환경이 변화되면서 교육의 중심이 점차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2. 지역사회 청소년개발사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조건

청소년개발 사업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젊은이들의 장기적인 삶의 기회들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젊은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비롯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의 기대감을 가져야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적절한 직업을 가져야하고 또한 직업인으로서 자신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직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학습과정을 추구해야한다. 두 번째는 화목한 가정유지와 사회적인 인간관계형성을 위하여, 젊은이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해야하며,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모범적인 보호자로서, 그리고 친척들 및 동료들과는 적극적이며 호의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을 명행해야한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헌을 기대할 수 있다. 젊은이들이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거나 법규를 준수하는 수준에서 출발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지킴이, 특산품에 대한 마케팅, 다양한 전통문화 계승 및 문화행사 참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같은 세 가지 목적성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공적으로 성장을 유도하는데 필요시 되는 몇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자. 우선 그들은 학교생활을 잘 수행하고, 학교 밖에서의 취미활동을 적극적으로 개

발하며, 그리고 기초적인 생활기술들을 획득하여 생산적인 인간이 되는 학습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간의 미시적 협력을 기초로 형성되는 자발적이고 협력적이며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으로 규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networks), 규범(norms), 신뢰(trust) 등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특성들은 가족, 공동체, 지역사회, 취미 모임, 시민단체 등의 수많은 미시적 네트워크를 통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미시적 네트워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참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공급하고, 구성원들 간의 물리적 거리감을 없애고, 더 큰 형태의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내는 촉매가 된다.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의사 결정, 정보의 흐름, 그리고 자원의 배분 등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들이 얼마나 중요하며, 강한 힘을 행사하는지를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적 네트워크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수직적, 폐쇄적, 하향적, 그리고 행정 중심적인 속성에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좀 더 수평적이고 개방적이며, 또한 상향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지역사회 내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자생적 네트워크와 종적 혹은 횡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접점과 고리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으로 지역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인 좁고 강하며(narrow and hard), 수직적(hierarchical)인 구조를 다소 넓고 부드러우며(broad and soft), 수평적(horizontal)인 네트워크 구조로 변화시켜야함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 및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구조 또한 하향식(top-down)에서 탈피하여 동등구조

혹은 상향식(bottom-up)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운영상의 민주적인 절차와 의사결정 및 재정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진정한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학연이나 지연과 같은 연고적 연결고리에 의존하는 수직적 사회관계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구성하는 지배적인 측면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른 공간에서는 이와 성격을 달리하는 시민사회의 연결고리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동일한 분야에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집단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수직적 측면보다는 수평적 성격이 강하고, 그 인적 개방성이 매우 높은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조직들은 지역사회의 주요 사안들 및 현안들에 대하여 참여적 지향성이 매우 강하여, 지방정부를 포함한 행정조직으로부터 의존정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자생적 시민 조직들의 출현과 활발한 활동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3. 미국의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개발정책과 그 시사점

미국의 지역사회청소년개발(Community Youth Development)은 청소년개발과 지역사회개발이 통합된 개념이다. 먼저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개발에 관한 몇 가지 영역의 추진 방향을 살펴보자(Hamilton, 2002).

첫째,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A natural process)으로 인간이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어린이와 청년을 동시에 포함)개발은 한 개인의 물리적 혹은 사회적 환경에 의한 지원 및 도전과 관련하여 인간

에게 내재된 고유한 잠재력에 대한 자연스러운 발견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과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개발 모델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개발은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특히 청소년개발은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까지도 건전하고, 만족스러우며, 생산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활비를 벌고, 시민 활동에 전념하고,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등의 역량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The Five C’s”는 청소년개발의 목표에 대한 의미 있는 요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보호 / 동정심(caring / compassion), 재능(competence), 인격(character), 대인관계(connection), 그리고 자신감(confidence) 등이다.

결국 청소년개발의 과정은 연령에 근거하여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좀 더 세분화된 단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개발영역은 현저한 신체적 발달과 함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도덕적 발달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둘째, 철학 혹은 접근방식(A philosophy or approach)으로 개인, 가정, 다양한 조직 및 기관, 특히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성장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개발에 대한 접근방식은 모든 젊은이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전념하는데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청소년들을 그들의 결점(deficits)에 따라 구분하려는 시도보다는 그들의 장점에 비추어 긍정적 측면과 자산토대(asset-building) 접근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청소년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들(약물남용, 폭력가담, 미혼모 등)을 확인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청소년개발의 철학 혹은 접근방식에 대한 가

장 중요한 목표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장에 우호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 사항이다.

셋째, 프로그램과 관련 기관(Program and organizations)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성장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된 일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청소년개발프로그램들은 다소 포괄적이어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기상황 혹은 곤경에 처해 있는 특수집단으로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책임 있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동료들 혹은 성인들과 상호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구조적이며 도전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적절하고 지속성을 지녀야 하며 참가자들의 욕구변화에 즉각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결국 청소년개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과 함께 그리고 청소년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프로그램이 매우 가치 있고 필수적일지라도 그것이 단순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혹은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청소년개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개발 기관 및 단체들은 청소년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 아래 존재하는 것이다. 어떤 기관들은 청소년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기관의 프로그램들은 청소년개발의 근본개념과 상반되게 단순히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문제해결 중심 프로그램들은 참가자들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들이 당면한 광범위한 과제들을 자신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여 해결해가는 청소년 개

발의 근본원리와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넷째, 지역사회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s for the community)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동심과 팀워크(Collaboration and teamwork)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들과 성인들 간의 관계정립을 모색한다.

물론 청소년들의 참여는 프로그램 계획, 실행, 그리고 평가 과정의 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참여가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충분히 투자해야 하며,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방향 제시, 통찰력, 에너지, 그리고 노력 등을 제공하는 완전한 파트너로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온전한 기여자들이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는 그들이 개발한 기술과 재능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은 그들의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해야하는 권리와 시민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관련기관들의 변형에도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어떤 면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는 단순히 지역사회의 특정한 프로젝트와의 관계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얹혀진 학습 및 작업환경과 관련되어 있다(Pittman, 2000).

만일 파트너로서 충분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청소년들은 그들의 지역사회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변화촉진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협신적 노력은 지역사회 청소년개발 입장에서 보면 사각의 테이블을 떠받치는 4번째 다리로 표현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성인들과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그들이 평생학습자로서, 지역 산업의 주역으로서, 변화촉진자로서 지역사회의 시민적, 사회적, 경제적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인식을 형성하여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공론화된 견해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분야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대중적인 의견일치와 가치에 대한 동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실천전략이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네 번째 요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답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그들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청소년개발은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재능을 습득하여 자신과, 주변사람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우호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Pittman, 1992; Pittman & Zeldin, 1994; Takanish, 1993). 나아가 지역사회청소년개발을 촉진시키는 창의적인 지역사회들은 청소년들을 긍정적인 청소년개발과정의 파트너로서 적극 관여하도록 배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역사회 젊은이들이 성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숙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청소년개발은 단순히 예방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 개발에 대한 욕구충족 과정에 몰입(commitment)하게 될 때 그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관심이나 관여정도는 자동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현재의 시민으로서 혹은 미래의 성인으로써 자신들의 지역사회와 국가에 건전하게

기여(contributing)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개발과 재능을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empowered) 것이다.

III.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개발정책의 효율적 운영 모형 정립

1.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참여 증진을 위한 인프라구축

청소년들이 다양한 지역사회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 성인들이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그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간주한 상태에서 참여분위기를 조성과 함께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청소년들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지녀야 하며 참여에 필요한 사전준비 및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은 그들을 미성숙한 인격체로 취급하여 지도, 보호, 규제, 간섭, 통제, 그리고 각종 행사에 동원하는 대상으로서 수동적 참여와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객체로 보아왔다. 그러므로 청소년정책과 활동은 성인들 중심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여 왔으며, 당연히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부모 혹은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을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닌 이 사회의 주체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청소년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며 실행에서 평가에 이르는 의사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한다면 실질적인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은 지리적 영역, 주민 간 유대감 및 상호작용, 행정단위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일반화된 정의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실시 당시는 주로 마을단위의 지역사회개발접근 이었다. 산업화의 진전이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단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마을이나 리 단위의 행정구역이 붕괴되는 현상이 너무 심화되어 급기야는 읍면단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하부구조가 무너지면 언젠가는 그 과장이 중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하나의 국가를 인간의 신체구조와 비교해볼 때, 인간의 손끝과 발끝이 모두 병들어 썩어 없어진다면 결국 몸체는 온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 할 시점이다. 정부는 국가 존폐의 사활을 걸고 읍·면 단위의 지역사회를 교육, 문화, 의료 시설 등이 갖추어진 실질적인 삶의 정주권으로 개발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투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현재의 주인공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능력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학습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갈수록 경제적 문제와 이혼과 같은 사회문제로 가정이 해체되어 어린 자녀들이 보육시설이나 농촌지역의 조부모에게 맡겨지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주의 성향의 심화로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활동은 해당 지역사회의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학교 등과 같은 지원기관들과 긴밀한 연계와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그 기관들 본연의 기능에 따라 효율적인 청소년활동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지역사회 자문위원회, 후원회, 평생학습 단체 등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부모들이 청소년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시행되어야 하며, 부모들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기관장, 지역유지, 학교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후원회를 결성하여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지역단위 청소년단체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각종 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 자연체험활동, 스포츠, 레크레이션 활동 등을 주로 학교 중심으로 실시하여 왔기 때문에 청소년단체가 가진 기능을 충분히 이행하는데 한계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단체 활동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내의 각종 자원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천정웅, 1998).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면적 재능(competencies)을 개발하고 정서적이며 오락적 측면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활동공간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소년 활동공간이나 재원의 확보는 청소년지도자나 프로그램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청소년 인구수, 접근성, 활동의 성격에 따라 적정한 규모와 개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역사회에는 인적·물적 자원을 포함하여 동원 가능한 많은 자원이 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활동 및 사업에 대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방안을 검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동 모금행사나 지역유지들을 중심으로 후원회를 결성하여 재원마련을 위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재원동원이나 프로그램의 지속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활동에 직접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과 성인 간의 파트너십강화

대다수의 어른들은 여전히 10대 청소년들의 지각력이나 역량에 대하여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정치, 사회, 문화, 과학 등의 각 분야에서 젊은 활동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눈부신 활약상들은 십대를 포함한 영파워가 냉철한 지각력과 엄청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그렇다면 성인들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로부터, 그들의 에너지, 열정, 그리고 몰입의지를 어떻게 유도해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청소년들을 사회의 다양한 당면과제와 활동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청소년들에 대한 성인들의 파트너십 실천의지라고 단정할 수 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지역사회 혹은 조직 및 단체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자신들의 의견 제시와 의사결정의 기회를 갖는 것이며, 서로의 노력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인식하면서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과 성인간의 파트너

십은 청소년들이 당면한 해결과제(issues) 혹은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성인들이 전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etts(1996) 등이 밝힌 연구결과에서는 청소년 참여의 본질을 성인들과 청소년들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적인 노력과 상호간에 지역사회에 기여의식 함양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 1) 청소년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이슈를 확인하며, 활동계획을 개발하고 그러한 계획들을 실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2) 청소년들은 그들의 참여 결과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실행기술을 발전시킬 기회를 갖게 된다.
- 3) 청소년들과 관련된 활동들은 청소년들과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이슈들과 요구들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성인들을 위하여 청소년 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 4) 청소년들과 성인들 각자가 필요한 역할과 협력관계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서로에게 기대하는 내용과 요구를 확인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 5)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동등한 수준의 단체 및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 그 이유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서로에게 종속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 6)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활동들은 그들이 성공을 확신할 수 있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효율성에 대한 감각을 개발할 수 있다.

- 7) 지역사회의 자문위원회 등과 같은 조직은 성인들과 청소년들이 같은 숫자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8) 청소년들과 성인们都 모두 시너지(synergy)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의 협력을 통하여 각자가 성취할 수 있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된다.
- 9) 청소년활동의 초점은 개별적인 단체나 학교와 구별되는 지역사회 차원에 두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초점을 둘으로써, 청소년들이 인위적인 사회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목적을 위한 진정한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 10)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지속적으로 겸토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지역사회 청소년정책실천을 위한 지원네트워크 모형

앞으로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청소년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시민활동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내외적인 문제해결과정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새로운 해결전략을 모색할 수 있으며, 또한 성인들과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그들에게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청소년 개발의 목표와 청소년 및 성인들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불우한 환경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청소년개발기관과 청소년 프로그램 정책 담당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직과 관리상의 새로운 사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물론, 오늘날 다변화되고 복합적인 사고를 맹목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각각의 청소년개발기관들은 나름대로의 전망(vision)과 임무(mission)에 최적으로 부합되는 구조와 실천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정립해야 한다. 앞서 제시된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지역사회의 모델을 구축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외형상 혹은 내부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공유되어야 한다.

첫째, 일차적으로 젊은이들을 해결되어야 할 지역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문제아로서가 아닌 투자해야 할 가치를 지닌 현재 혹은 미래의 자원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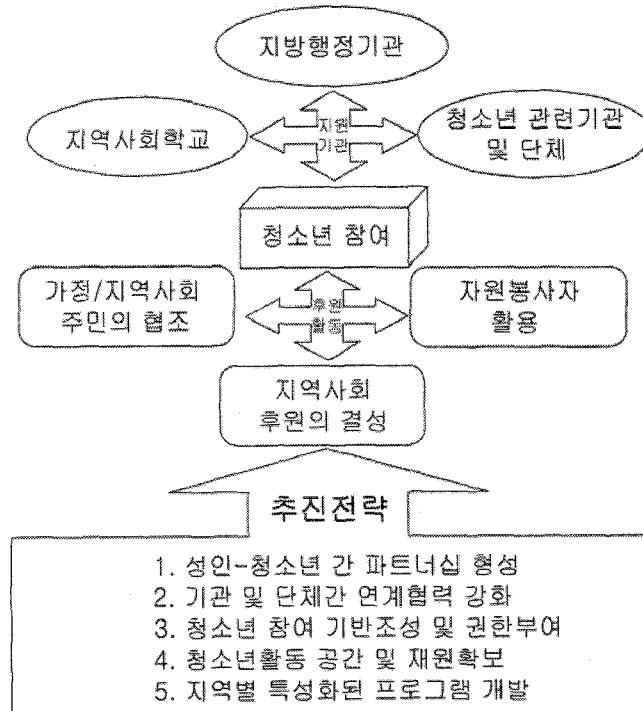
둘째,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개개인, 각종 단체,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확립하여 지역주민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역사회 청소년육성을 위한 인적구성,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 많은 상황요소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젊은이들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주어진 일에 전념하고 삶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인 발전을 강화시기 위하여 소속감을 높이고 구성원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강한 자아정체감 확립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 모든 청소년들로 하여금 궁정적인 청소년개발사업의 결과를 확신시킬 수 있는 정책, 실천, 그리고 우선순위 결정 등과 같은 요소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림Ⅲ-1] 지역사회청소년개발(CYD) 실천모형

IV. 글을 마치며

새로운 조직적인 사고는 역동적인 구조, 무한정한 범주, 다양한 상품과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변화 속에서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많은 청소년개발기관 및 단체들이 새로운 조직적 사고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청소년개발의 기본원리는 청소년개발 기관이나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청소년들의 삶과 하루하루의 생활을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문제를 파악해야하며,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접근들을 시도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공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실천을 지향하는 인간 개발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 정책담당자, 프로그래머, 모든 청소년, 그리고 지역사회가 강한 실천의지,

동료의식, 그리고 구조적 접근들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개개인의 재능, 아이디어, 그리고 에너지를 개발하고 참여시킴으로써 더 넓은 세계를 발견하고 창조하며 이끌 수 있는 인간정신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청소년 개발에 대한 논의 중의 하나는 단순히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청소년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들이 소속된 지역社会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견전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른들과 함께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는 파트너십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기존의 프로그램 중심의 청소년개발 사업들이 종종 교육적인 접근보다는 그들의 감각적인 흥미를 자극시키는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행사(event)위주로 진행됨으로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견전한 발달을 도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

이 있어왔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부모들 입장에서도 지역사회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확립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어, 젊은이들이 알고 있어야 할 문제점들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인식하고 대처함과 동시에 그러한 변화를 주도 할 수 있는 리더십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V. 참고문헌

- 문화관광부. (2003). 제3차한국청소년기본계획 (안).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 (1991~2002).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 이성, 정지웅. (2002). 지역사회조직론: 지역사회리더십과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 임상봉, 정지웅. (1997). 지역사회개발학. 서울: 서울대출판사.
- 정지웅. (2000).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조남억. (2002).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영승. (2003a). 청소년 문화포럼: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역사적 변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조영승. (2003b). 청소년정책론.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천정웅 외. (1998). 청소년의 자율참여와 미래.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청소년과 지역사회.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청소년과 지역사회 참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학회. (2000). 21세기 청소년포럼: 새로운 세기의 청소년상 모색. 한국청소년학회.
- 한규석(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황정규(1986). 인간과 미래: 미래지향의 인간교육.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 Betts, S., et. al. (1996). *Moving Ahead Together: What works for youth*, Washington DC.
- Davidow, W. H., & Malone, M. S. (1992). *The virtual corporation: structuring and revitalizing the corporation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E. Harper Business.
- Eugene C. R. (1998). *Building Assets in congregation: A Practical Guide for Helping Youth Grow Up healthy*. Minneapolis: Search Institute.
- Lerner, R. M. (2002). *Adolescence: development, diversity, context, and application*. Upper Saddle River, NJ: practice Hall.
- Peter L. B., & Karen J. P. (2001). *Trends In Youth Development: Visions, Realities and Challenges*.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Pittman, K. J. (1992). *defining the fourth R: Promoting youth development*. Washington, DC: Center for Youth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 Pittman, K. J. (2000). Balancing the equation: Communities Supporting Youth, youth supporting communities. *Community Youth Development Journal*, 1, 33-36.
- Takanishi, R. (1993). The opportunities of adolescence-research, interventions, and policy: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American Psychologist*.

(2006년 4월 24일 접수, 심사후 수정보완)